

# 김문수→한덕수→김문수...국힘, 초유의 후보 교체 막장극

### 경선서 선출된 김→한으로 강제 교체...전 당원 투표서 부결 김, 정식 대선후보 등록...한덕수와 면담 선대위원장 자리 제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가 무산되면서 여론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선주자 자격을 잃었던 김문수 후보에게 '대권 도전장'이 다시 돌아갔지만 당 안팎의 갈등은 커져가고 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빠르게 조직을 정비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반복=국민의힘은 당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에 대해 지난 9일 밤부터 본격적인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했다. 한덕수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의 단일화 실무 협상이 결렬되자 당 지도부는 전날 0시께 즉각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김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리는 광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한 후보는 오전 3시 30분께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책임당원이 됐다.

또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한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신청했고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반발한 김 후보는 곧바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고, 당내에서는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후보 강제 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양측의 단일화 합의가 실패하자 지도부는

전날 오후 11시께 비대위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했다.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근소한 차이로 많이 나오면서 전날 비대위에서 통과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김문수 후보 빠르게 조직 장악=후보 교체 소동을 빚은 국민의힘이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내부 전열을 가다듬으며 선거 모드에 시동을 걸고 있다.

김 후보 이날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4선 박대출 의원을 내정했다.

또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된 직후에는 한 후보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한 후보를 '선배님', '사부'라고 칭하면서 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선거 승리에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자신과 단일화 문제로 공개 충돌해 온 한 후보와 화해 무드를 조성하며 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했던 당원들을 아우르려는 시도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도 직접 참석해 통합과 화합을 기조로 당 의원들의 단합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에도 고삐를 바짝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데다 사법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견제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 범보수 진영이 함께하는 '빅텐트' 논의에 대한 목소리도 더욱 적극적으로 낼 가능성도 높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힘 '후보 교체 소동' 거센 후폭풍

### 친한계, 지도부 사퇴 촉구 성명...홍준표 "권영세 등 의원직 사퇴를"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무산된 국민의힘이 11일 후폭풍에 휩싸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보 교체 작업 무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지도부 책임론과 추가 사퇴 요구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간담에 이뤄진 후보 교체 사태를 "진은 당내 쿠데타"로 규정하며 "진은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 16명은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는 무리한 결정으로 당원과 지지자에게 큰 실망과 상처를 줬고, 무엇보다 대선에 큰 악재를 만들었다"며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온 권성동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판을 흔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중은 의원직 사퇴하고, 한덕수 배후 조종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하라"고 쏘아붙였다.

전날 밤 후보 지위를 회복한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선거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화합' 메시지를 내고 내용 봉합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경선 과정에서는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말과 행동이 상처로 남기도 한다"면서도 "대통령 후보로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원들에게 큰 절했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국면에서 정면충돌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와도 별도로 면담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권 원내대표 교체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 선출은 부적절하다. 선거기간 동안 전 의원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하도록 원내대표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경선에서 김 후보와 한때 경쟁했던 주자들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선 선대위에 합류해 통합을 외쳤다.

나경원 의원은 "난산 끝에 낳은 옥동자 김 후보"라며 "김 후보와 함께 우리 모두 하나 돼 밤낮 없이

뛰자. 더 큰 통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자리 모든 분과 힘을 모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며 한 전 대표를 향해 "지금 개인의 입장이나 정치적 계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선대위 합류를 촉구했다.

후보 교체 작업을 주도했던 지도부도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의 의회 독재로 굴절되고 마비된 국가기능과 정치를 다시 정상화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며 "오로지 단합과 통합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와 지도부의 봉합 시도에도 당내 파열음은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 원내대표를 겨냥해 "스스로 정하면 정리되고 같 일을 면전에서 그만두라 하기 난감한 후보에게 입장을 물었다. 알랑"이라고 꼬집었고, 박정훈 의원도 "후보 바꾸자고 단식까지 한 분(권 원내대표)을 선대위원장으로 두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윤석열 '김문수 지지' 메시지 논란

### SNS에 "단결해야"...조경태 국힘 의원 "그 입 다물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이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며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면서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 입 다물기를 바란다" "기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지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뒤편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 209-1920 · 문 209-1900 · 북광주 525-3161  
신 안 222-8171 · 영 신 571-7658 · 오 치 298-7601  
동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남 광 673-9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 중 청 222-8171

남구: 남 부 673-9836 · 백 은 651-1833 · 동 신 673-6836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62 · 서광주 389-1625  
문 천 376-7153 · 지 명 376-6511 · 동 안 603-0311  
정 청 389-1625

광산구: 문 남 952-1887 · 월 곡 959-1920 · 칠 원 973-2900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